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10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 허무한 인간

(집회 18,8-14)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0장 “주님은 나의 목자” 3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저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저희를 당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분이 집회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0, 6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 7 오만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혐오스럽고  
불의는 둘 다에게 역겹다.
- 8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불의와 폭력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그런 자는 제 영혼조차 팔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 9 먼지와 재가 뽀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생전에 벌써 썩어 간다.

- 10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 11 인간이 죽으면  
길짐승과 들짐승과 벌레들 차지가 된다.
- 12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 13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재앙을 불러들이시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의 나눔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래의 나눔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1696년 헨리 윈스탠리는 세계 최초로 에디스톤 등대를 건축하였  
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등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렬한 폭풍우가 밀어 닥칠 때, 자신이  
그 등대 안에 들어가 있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침내 1703년  
11월, 강렬한 폭풍이 불어왔고,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등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자신이 건축한 등대는 절

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등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날 아침, 그 등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나침반 출판사 홈페이지, 큐티 365일, “폭풍과 함께 사라진 등대”)

집회서 10장 12절은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 제공: [blog.naver.com/joajoala56](http://blog.naver.com/joajoala56)〉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우리 각자가 한 달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 말씀을 정하시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이달에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0장 ‘주님은 나의 목자’ 4-5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궁 금 했 어 요

**하루 중에 묵주기도를  
10단~20단 정도 바치고 있습니다.  
대략 5~6번에 나누어 바치고 있는데  
이어 기도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하루의 시작과 잠깐의 여유까지 기도로 채우시는 형제님이 부럽습니다. 늘 깨어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닦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정성된 기도로써 종일,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충분히 주님께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만큼 “묵주기도를 하면서 의문 나는 점”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언제나 다시, 이어 바쳐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기도는 방법과 철칙에 묶이기보다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시는 주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응답하시는 그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종일 사도신경에 마음이 꽃혀서 사도신경만 외워도 그릇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기도책이 없고 묵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서 횟수나 시간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 에 그분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고백이 담길 것을 고대하십니다. 하여 기도하는 이가 “마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콜로 2,2) 하십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콜로 3,1)하도록 이끄십니다. 기도의 의무에 속박되지 않는, 참 자유 안에서 충실하길 바랍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좌동본당 2구역4반-

찬미예수님!

저희 가좌동 본당은 망경동 본당에서 분리·신설되어 2010년 10월 23일 봉헌하여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진주시 초입에 자리한 아름답고 세련된 외관을 지닌 아담한 본당입니다.

약 3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저희 본당 신자들은 젊고 역동적인 형제·자매들과 흔들림 없는 신앙심을 지닌 장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긍정적인 신앙의 뿌리를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하느님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누며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4년 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신설 본당의 취약점을 잘 극복하고 끈끈한 단합과 튼튼한 신앙심, 배려 깊은 젊은 신부님의 열정으로 도공이 벽돌을 하나씩 구워 나가듯 나날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2구역 4반은 총 22세대 중 참석 8세대, 인원 8명의 아직은 작은 소공동체지만 다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소공동체모임을 하기 위해 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매번 모임마다 불참하는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2구역 4반은 40대 이후 60대 중반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함께 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허물없이 서로의 담장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제대회, 전례부, 성가대 등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동체 모임에서 한 복음말씀과 생활나누기를 본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 등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 마르지 않는 본당의 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소공동체 모임에서 본당 일로 투정을 하는 젊은 신앙인들에게 연륜 있는 선배 신앙인들은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마태 7.3)라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저희 소공동체에 빛과 소금이 되어 뒤에서 밀어 주고, 앞에서 끌어 주며 버팀목이 되어 주는 선배 신앙인들이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2구역 4반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느님의 참된 뜻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 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가좌동본당 2구역4반 반원들 〉

## 시작성가

###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